

#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청년안정기금 사업 추진 탄력

### 200건 처리 요구사항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집행부에 요구 의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가 200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11월 17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시정요구 60건, 처리요구 65건, 건의 75건 등 총 200건의 처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강령에서는 △무주요양병원 투석실 설치로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시정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산림 녹지 사업 공평관리가 수범사례로 제시됐다.

이어서 진행된 분야별 우려사항은 △극·도비 사업에 준비 미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군 조직의 직렬 균형관리 및 행정력 강화 방안 시급 △김운용갑 무주 미개회에 따른 예산 편성 부적절 및 정보 파악 부실 △사회 복지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안성농공단지 열선 설치사업 가동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명천저수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 누수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필요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및 판매구조 개선 △무주요양병원 전문 인력 확보 및 이탈 방지 체계 마련 △자동심장중격기(AED) 설치 및 관리 부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무주군 의료공백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 밖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지방교부세 페널티 절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 주 4.5일 근무제와 육아 재택 근무 도입 추진, 산림업무 전산화도 요구했다. 그리고 인구활력 정책 실효성 부족에 따른 정책 재정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의 구조적 문제 및 수급관리 부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장수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창 전수식은 지난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9개 지자체가 모인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 워크숍과 함께 개최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연계성, 청소년 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중

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권위있는 평가다.

장수군은 청소년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임에도 지속적 청소년 정책 기반 구축과 참여 활성화 노력이 돋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수군은 '건강한 미래, 창의적인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워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참여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군수와의



대화 등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시설과 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수요 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며, 농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체능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점으로 꼽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무주군은 15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귀농·귀촌 정책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귀농·귀촌인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원진 등 2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서 △정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강

화,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귀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군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귀농·귀촌 정책 실행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확정

무주군이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정기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년도에 30억 원 규모의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2025~2037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주)수푸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를 확보하고 입주 세대를 확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무주군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연 최대 5%를 5년간 지원하며, 이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2년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설명회에는 입주 대상자 28세대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은 이들에게 '선정증'과 내 집 마련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집 모형'을 전달했다.

또한 사업 추진 배경과 지원 과정, 재정지원(대출이자 지원)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면 확대

장수군은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그간 장수군은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자체 지원해 왔다.

군은 돌봄 비용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본인부담금 50% 지원에서 나아가 첫째아는 70%, 둘째아 이상은 100%까지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물론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며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5건 확정

진안군은 지난 12일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최종 확정했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군민이 신청한 국민신청



실명제 사업, △군의회 요구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부터 중점관리 대상 후보 사업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대규모 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2건이 포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12일 진안군 점동문화전수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탈탄소 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약 받고 있는 지역은 진안군 111.7km를 비롯해 무주군 21.3km, 장수군 27.9km 등으로, 약 1,100여 명의 주민이 환경규제와 행위 제한 등을 겪고 있다.

주민지원 사업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수질 개선 및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해 규제에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금강유역환경청은 탈탄소 녹색명문 전환 비전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수질보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9억 3100만원 부과

진안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6,190건, 9억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